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66호【우체 제25409호】주제 105(2016)년 9월 22일(목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핵탄두폭발시험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핵탄두폭발시험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리만건동지, 홍승무동지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개척하시고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어 우리 나라를 존엄 높은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빛내여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영성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한생토록 간직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는 참가자들의 가슴가슴은 풀없는 행복으로 새치게 끓어넘치고있었다.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전략적핵무력건설구상에 따라 진행된 핵탄두폭발시험의 장쾌한 최성은 9일의 명철을 뜻깊게 경축하고 주체조선의 핵공격능력의 무적막강한 위력을 힘있게 떨친 자랑찬 승전포성이며 남강도 미세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면상을 후려갈긴 무서운 불벼락, 통쾌한 대승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촬영장에 도착하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려져올라 선군조선의 하늘가로

메아리쳐갔다.

참가자들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운해의 서막을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의 대성공으로 열어제끼고 정의의 핵보검을 더욱 역세게 버려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들리는 참가자들에게 손저어주시며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고도로 실천화된 위대한 핵탄두폭발시험을 통하여 주체의 핵강국, 선군조선의 강대성과

불패성을 세계만방에 힘있게 과시하는데 기여한 위훈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이 백두의 굴함없는 공격정신과 1950년대 군자리정신으로 핵무기병기화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국가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당당한 핵보유강국으로의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공고히 하되는데서 보다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려져올라 하늘방울 진강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손을 저어주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에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조선로동당의 핵강국 건설위업실현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모든것을 바쳐갈 철석의 의지로 가슴 불태웠다.

본사정치보도반

김정은령도자께서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켓용 대출력발동기시험을 지도, 조선을 가까운 몇해안에 정지위성보유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세계 언론들 일제히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형의 정지위성발사장을 찾으시어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켓용 대출력발동기시험을 지도, 조선을 가까운 몇해안에 정지위성보유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세계 언론들 일제히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형의 정지위성발사장을 찾으시어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켓용 대출력발동기시험을 지도, 조선을 가까운 몇해안에 정지위성보유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파에 대해 위성발사준비를 다그쳐 끝낼데 대하여 지적하시었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최근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켓용 대출력발동기시험을 지도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시험결과에 만족을 표시하시고 국가우주개발국에서 우주개발을 위성개발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여 조선의 힘과 기술로 각이한 용도의 위성들을 더 많이 제작, 발사하여 조선을 가까운 몇해안에 정지위성보유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고 보도하였다.

미국의 UPI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북조선이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켓용 발동기시험을 성공적으로 진

행하였다고 밝혔다.

김정은령도자께서 새형의 정지위성발사장으로 알려진 곳에서 시험을 지도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우주개발과 리용이 조선로동당의 중요한 방침이며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위성들을 더 많이 제작, 발사하여 북조선을 가까운 몇해안에 정지위성보유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프랑스의 AFP 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나라의 새형의 정지위성 발사장에서 시험을 지도하시면서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위성발사준비를 다그쳐 끝낼것을 호소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려운 속에서도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시었다고 보도하였다.

로세아의 리아 노보스퇴통신, 인데르뉴스통신, 신문들인 《로씨스카야 가제타》, 《폼페르엔트》, 《모스콥스키 프소보제즈》, 《프소볼스카야 브라우다》, 《브즈그라드》, 로세아 24TV방송, 스푸트니크방송, 인터넷통신들인 가제타, 두, 포에스폰트, 뉴스루, 톨, 메그롬, 인터넷TV 《미르 24》, 중국보도망, 환구망, 이란의 라스남통신, 신문 《이란 메일리》, 프랑스의 TV방송, 파르스 투데이방송, 타이신문 《방코크 포스트》, 미국의 AP통신, 블룸버그통신, CNN방송, 인터넷통신 《CNK NEWS》, 영국의 BBC방송, 도이체프레스의 데제아통신, 잡지 《포쿠스》도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였다.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업적토론회

여러 나라에서 진행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업적토론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장군 68대에 즈음하여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과 인도네시아 라비프라 바르베라 브라마하사사에서 1일과 4일에 진행되었다.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 켈메비 외호르만을 비롯한 토론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송고한 경의를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날로 황포해지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온갖 도전을 핵억력으로 쳐부리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계시는데 대하여 열거하고 그 높은 지주의 기치를 높이 불고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지지와 변태생활들을 더욱 적극 벌려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인도네시아 라비프라 바르베라 브

라마하사 사장 하룬 씨누파이는 다음과 같이 토론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의 끊임없는 도전과 핵전쟁위협에 대처하여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킴에 대한 새로운 모션을 제시하고 그를 일관하게 관철해가고있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높이 모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자유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변함없이 나아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장군 68대에 즈음하여 메히프, 우간다에서 업적토론회가 2일에 진행되었다.

행사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대영상이 모셔져있었다.

행사장에는 김일성, 김정일동지회고 메히프전우협회, 메아프리카운동 우간다전국정령위원회의 인사들과 군

중이 참가하였다.

김일성, 김정일동지회고 메히프전우협회 위원장 안드레스 가스카 환세스는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조선을 해방하시고 동방에서 첫 인민민주주의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신 일제의 애국자이시며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라고 칭송하였다.

메아프리카운동 우간다전국정령위원회 위원장 다니엘 루가라미는 다음과 같이 토론하였다.

9월 8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장군 68살이 되는 날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명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다.

우리는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나라의 통일유 이룩하려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언제나 아낌없는 지지성원을 보낼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당이 말려준 초소를 지켜 한생을 바쳐가는 완강한 실천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오늘 우리 일꾼들이 서야 할 위치는 대오의 맨 앞자리이며 일꾼들은 생선길줄 헤쳐 나가는데서 혁명병이 되고 화선애 나가 대오를 이끌어가는 기관차가 되어야 합니다.》
40년, 나라의 신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1부대에서 오래 동안 일해는 경력도 날다르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 세월 자가 말은 초소를 지키기 바라고 서 있는 혁명적 이기교사라는 열정적 실천가, 완강한 실천적 의지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제1소의 불꽃기술적도대를 훈련시켜

남 신 의 주 체 신 소

그러나 대오의 기어하였을뿐 아니라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에서 커다란 진보를 이룩한 성과는 더욱더 소중하고 훌륭하다. 종업원의 시급부터 예순을 넘긴 오를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는 헌신으로 밤을 바치고 피신을 할 때 말이 말려준 초소를 굳건히 지켜가고있는 남신의 주체신소 소장 리동철동무.
그의 삶은 오늘 당이 바라고 기대가 요구하는 참된 일꾼이었던 어떤 사람이든 대오를 위해서 그런 일군을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하는가에 대한 훌륭한 대담이다.

혈맥은 순간도 멈춤이 없다

리동철동무의 겸손은 단호했다. 《우리는 남신이라는 신강이 허혈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지금 있는 남신의 물에서 순간이나마 신강이 바뀌어지거나 퇴락하기가 타 어떤 결과가 이어지는가는 모두가 잘 알고있습니다. 지금 있는 남신기계를 가지고서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와 늘어나는 동수요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제나 저나 일리, 자기의 초소를 순간의 기쁨도 없이 잘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그는 남신의 초소를 보며 가슴이 철렁하는 심정을 잊지 않고 있다. 남신의 초소를 보며 가슴이 철렁하는 심정을 잊지 않고 있다. 남신의 초소를 보며 가슴이 철렁하는 심정을 잊지 않고 있다.

리동철동무는 남신도 평안북도 전진화구(당시)에 제대배낭을 뜰 때로부터 40년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남신의 초소를 보며 가슴이 철렁하는 심정을 잊지 않고 있다. 남신의 초소를 보며 가슴이 철렁하는 심정을 잊지 않고 있다.

남신의 초소를 보며 가슴이 철렁하는 심정을 잊지 않고 있다. 남신의 초소를 보며 가슴이 철렁하는 심정을 잊지 않고 있다. 남신의 초소를 보며 가슴이 철렁하는 심정을 잊지 않고 있다.

소 장 리 동 철 동 무 에 대 한 이 야 기

남신기계가 있는 위치 섬으로 남 면서 들어갈수 있었던 것이다. 그 후 리동철동무는 남신의 신인 에 의하여 남신의 주체신소 소장 으로 사임하게 되었다. 비록 초 소 는 말라지고 말은 입두는 더 무 거워졌지만 땅을 따라 끝까지 걸 어 온 그의 걸음세에서는 한치의 드림이나 흐트러짐도 없었다.

대중에게 당의 목소리를 제 때 에 전달하기 위해 유류차제로 마 련한 남신선로에 담양지역의 방 송신로를 모두 복구하고 백수집 개 의 방음중계초소에 태양빛 전 시판에 의한 2중전원보장장 벽을 세우며 부속에는 1만 5 0 0 0여개의 실내외송기기를 자 체로 제작하기 위한 전류를 힘으 로써 끌어오는 시기와 한지라도 더운 피와 땀 지어 목숨까지 기 록이 바쳐야 할 시기도 있었을 터 라고 하였다. 그리고 남신의 초소 를 지키기 위해 남신의 주체신소 는 남신선로에 담양지역의 방 송신로를 모두 복구하고 백수집 개 의 방음중계초소에 태양빛 전 시판에 의한 2중전원보장장 벽을 세우며 부속에는 1만 5 0 0 0여개의 실내외송기기를 자 체로 제작하기 위한 전류를 힘으 로써 끌어오는 시기와 한지라도 더운 피와 땀 지어 목숨까지 기 록이 바쳐야 할 시기도 있었을 터 라고 하였다.

향기는 꽃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40년간 제1부대 초소로 일어난 사명에는 리동철동무의 인간적 에 대해 우리는 굳이 삶의 향기 라고 할수 없습니다. 《향기는 꽃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중에서도 향기 만, 대중이 뜨겁게 사랑하고 따 르며 존경하는 그런 인간에게 서는 이 세상 그 무엇에 비하지 못할 아름다운 또 다른 향기가 풍 기는 것이다.》

남신의 초소를 보며 가슴이 철렁하는 심정을 잊지 않고 있다. 남신의 초소를 보며 가슴이 철렁하는 심정을 잊지 않고 있다. 남신의 초소를 보며 가슴이 철렁하는 심정을 잊지 않고 있다.

그보다 더한 것도 웃으며 해져 갈수 있다는것을 진심으로 느꼈 다고 뜨거움에 젖어 추억했다. 그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 남신의 초소를 보며 가슴이 철렁하는 심정을 잊지 않고 있다. 남신의 초소를 보며 가슴이 철렁하는 심정을 잊지 않고 있다.

남신의 초소를 보며 가슴이 철렁하는 심정을 잊지 않고 있다. 남신의 초소를 보며 가슴이 철렁하는 심정을 잊지 않고 있다. 남신의 초소를 보며 가슴이 철렁하는 심정을 잊지 않고 있다.

남신의 초소를 보며 가슴이 철렁하는 심정을 잊지 않고 있다. 남신의 초소를 보며 가슴이 철렁하는 심정을 잊지 않고 있다. 남신의 초소를 보며 가슴이 철렁하는 심정을 잊지 않고 있다.

남신의 초소를 보며 가슴이 철렁하는 심정을 잊지 않고 있다. 남신의 초소를 보며 가슴이 철렁하는 심정을 잊지 않고 있다. 남신의 초소를 보며 가슴이 철렁하는 심정을 잊지 않고 있다.

《남신은 남신의 초소를 보며 가슴이 철렁하는 심정을 잊지 않고 있다. 남신의 초소를 보며 가슴이 철렁하는 심정을 잊지 않고 있다. 남신의 초소를 보며 가슴이 철렁하는 심정을 잊지 않고 있다.》

남신의 초소를 보며 가슴이 철렁하는 심정을 잊지 않고 있다. 남신의 초소를 보며 가슴이 철렁하는 심정을 잊지 않고 있다. 남신의 초소를 보며 가슴이 철렁하는 심정을 잊지 않고 있다.

남신의 초소를 보며 가슴이 철렁하는 심정을 잊지 않고 있다. 남신의 초소를 보며 가슴이 철렁하는 심정을 잊지 않고 있다. 남신의 초소를 보며 가슴이 철렁하는 심정을 잊지 않고 있다.

남신의 초소를 보며 가슴이 철렁하는 심정을 잊지 않고 있다. 남신의 초소를 보며 가슴이 철렁하는 심정을 잊지 않고 있다. 남신의 초소를 보며 가슴이 철렁하는 심정을 잊지 않고 있다.

왕재산예술단 청진에서 공연 진행

왕재산예술단 청진에서 공연을 진행했다. 이번 공연은 '대오의 기어'라는 주제로, 대오의 기어, 대오의 기어, 대오의 기어... (text continues with details of the performance)

전국금속공업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

전국금속공업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발표회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주제로, 과학기술의 발전, 과학기술의 발전... (text continues with details of the conferenc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 유엔총회 제71차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뉴욕 도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이 유엔총회 제71차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뉴욕에 도착했다. 이번 회의에는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 중 하나이다.

제11차 건축미학토론회 진행

제11차 건축미학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건축미학의 발전'을 주제로, 건축미학의 발전, 건축미학의 발전... (text continues with details of the seminar)

《원산국제친선항공축전-2016》선진화가 나왔다

《원산국제친선항공축전-2016》의 선진화가 나왔다. 이번 축전은 '친선항공'을 주제로, 친선항공의 발전, 친선항공의 발전... (text continues with details of the aviation festival)

제15차 평양국제영화축전 참가자들 친선유희오락경기 진행

제15차 평양국제영화축전 참가자들의 친선유희오락경기가 열렸다. 이번 경기는 '친선유희'를 주제로, 친선유희의 발전, 친선유희의 발전... (text continues with details of the entertainment competition)

벨라루시에 우리 나라 대사관 개설

벨라루시에 우리 나라 대사관이 개설되었다. 이번 개설은 '외교관계'를 주제로, 외교관계의 발전, 외교관계의 발전... (text continues with details of the embassy opening)



다들 못 하겠어 함께 나누기 어린 어린이 다정한 사정정 건넵다

수천리에 이어진 우리 집뜨락

북부피해복구전선에 지성을 바치고있는 평양시민들의 소행

그들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을 본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일선전선의 거대한 위력으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위투쟁의 기적적승리를 쟁취하자서는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받아들인 그날 수도시민들은 누구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 세상에 다치지 않았을 때 수도의 가정에서는 감동적인 화풍들이 연이여 펼쳐지고 있었다. 9월 11일 일요일 저녁 평양외국어대학 교원 리남혁동무는 아내에게 자그마한 봉투 한개를 꺼내놓으며 자기들이 세간날 때 부모들이 마련해준 자금을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보내자는 결심을 미루었다.

평양시대의 불사조 리명규 영웅의 가정에서도 가슴뜨거운 담배들이 오가고 있었다. 《북쪽은 일찍 날아 차지는데 그들이 감기에라도 들면 어찌겠나. 내 생각엔 두통한 옷을 보내주면 좋을 것 같구나.》

평양일용품공장에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을 믿고 당과 인민이 하나로 굳게 뭉쳐 부닥친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것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부름에 적극 호응해나설줄 아는 사람만이 당과 수령에게 충실할수 있으며 멸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치지 않았을 때 수도의 가정에서는 감동적인 화풍들이 연이여 펼쳐지고 있었다. 9월 11일 일요일 저녁 평양외국어대학 교원 리남혁동무는 아내에게 자그마한 봉투 한개를 꺼내놓으며 자기들이 세간날 때 부모들이 마련해준 자금을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보내자는 결심을 미루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부름에 적극 호응해나설줄 아는 사람만이 당과 수령에게 충실할수 있으며 멸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부름에 적극 호응해나설줄 아는 사람만이 당과 수령에게 충실할수 있으며 멸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북부전선으로 떠난 어머니

어제까지 다치지 않았을 때 수도의 가정에서는 감동적인 화풍들이 연이여 펼쳐지고 있었다. 9월 11일 일요일 저녁 평양외국어대학 교원 리남혁동무는 아내에게 자그마한 봉투 한개를 꺼내놓으며 자기들이 세간날 때 부모들이 마련해준 자금을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보내자는 결심을 미루었다.

어제까지 다치지 않았을 때 수도의 가정에서는 감동적인 화풍들이 연이여 펼쳐지고 있었다. 9월 11일 일요일 저녁 평양외국어대학 교원 리남혁동무는 아내에게 자그마한 봉투 한개를 꺼내놓으며 자기들이 세간날 때 부모들이 마련해준 자금을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보내자는 결심을 미루었다.

《처녀 어머니》의 마음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부름에 적극 호응해나설줄 아는 사람만이 당과 수령에게 충실할수 있으며 멸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지원열풍속에 늘어나는 청년미용선구자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부름에 적극 호응해나설줄 아는 사람만이 당과 수령에게 충실할수 있으며 멸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승리자가 되어 다시 만나자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부름에 적극 호응해나설줄 아는 사람만이 당과 수령에게 충실할수 있으며 멸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부름에 적극 호응해나설줄 아는 사람만이 당과 수령에게 충실할수 있으며 멸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북부전선에 울려 퍼지는 신념의 노래, 투쟁의 노래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돐 기념 전국 대학생 체육경기대회 개막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부름에 적극 호응해나설줄 아는 사람만이 당과 수령에게 충실할수 있으며 멸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부름에 적극 호응해나설줄 아는 사람만이 당과 수령에게 충실할수 있으며 멸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돐 기념 전국 부분별 과학토론회 진행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부름에 적극 호응해나설줄 아는 사람만이 당과 수령에게 충실할수 있으며 멸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부름에 적극 호응해나설줄 아는 사람만이 당과 수령에게 충실할수 있으며 멸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돐 기념 조선투표전시회 개막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부름에 적극 호응해나설줄 아는 사람만이 당과 수령에게 충실할수 있으며 멸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부름에 적극 호응해나설줄 아는 사람만이 당과 수령에게 충실할수 있으며 멸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돐 조선투표전시회 개막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부름에 적극 호응해나설줄 아는 사람만이 당과 수령에게 충실할수 있으며 멸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부름에 적극 호응해나설줄 아는 사람만이 당과 수령에게 충실할수 있으며 멸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